'2030 Busan Expo'유치기원 아마추어 챔피언십

구력10년의 이상전 데일리베스트 우승

'2030 Busan Expo' 유치기원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구력 10년의 이상전씨가 데일리베스트상 을 차지하며 미드아마 챔피언컵을 거머쥤다.

아마추어 골프발전과 활성화에 힘이 되고, 전국 아마골퍼들의 건강증진과 결성력을 다지며,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골프축제로 '2030년 Busan Expo'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 하고자 (주)지맥스(회장 정성우) 주최로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회장 김양권) 주관과 부산광역시골프협회(회장 최광석) 해운대컨트리클럽(회장 조성태) 후원을 받아, 지난 5월9일~10일. 이틀간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경기로 해운대컨트리클럽(27홀 파72)에서 전국의 각 골프장 챔피언 및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실력파 선수 총 132명이 출전하여 아마제왕을 가렸다.

첫날 경기는 막강자 장흥수. 조영우씨가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선두에 이어, 이상전씨가 버디 3개를 잡고 이븐파 72타를 기록하며, 선두와 1타차 2위에서 맹추격을 가했다.

2라운드 경기에 들어 이상전씨는 "기회는 버디 찬스로 잡고 무조건 파로 마무리"하는 작전으로 첫 홀에서는 어프러치샷이 길어 그린 온을 못시켰으나, 7m 퍼터를 멋지게 파 세입하고, 6.7번홀에서 특기인 드라이버샷을 정확하게 날리고, 정교한 퍼팅으로 버디 찬스를 가뿐히 성공시키며, 2언더파 99타로 조영우씨와 타이를 이뤄내 나란히 공동 선두에 올랐고, 전반전 전홀 보기없이 파행진으로 버디2개를 기록하고 2언더파 34타를 쳐 역전의 기틀을 구축했다.

후반전에 들어 첫 홀 티샷이 안 좋아 벙커에 들어가는 위기를 맞게 된 이상전씨는 차분한 경기로 3온 보기를 기록했지만, 드디어 12번홀에서 조영우씨의 보기를 파로 따라잡아 1타차 단독선두로 판세를 뒤집었다.

이어, 13번홀(파4)에서 황금의 버디를 캐내며 승세를 굳힌 이상전씨는 15번홀(파5)에서의 물오른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버디

● 경기결과

우승	이상전	142(72 70)
준우승	장흥수	145(71 74)
3위	조영우	147(71 76)
4위	박규환	148(75 73)
5위	박진환	148(73 75)
데일리베스트	이상전	70(34 36)
홀인원	장진규	(9번홀)

를 잡아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3언더파 129타로 2위 장흥수씨를 3타차로, 3위 조영우씨를 4타차로 제압하고 선전했다.

16번홀(파4)에서 짧은 파 퍼터를 놓치며 위기를 맞은 이상전씨는 보기를 기록한 아쉬움을 달래며, 최선을 다한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당겨졌지만 3온 파로 마무리해 2라운드 총합계 2언더파 142타(72 70)로 쟁쟁한 우승 후보인 장흥수씨를 3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영광의 우승컵과 그린자켓을 차지했다.

조영우씨는 2위 장흥수씨와 2타차인 2오버파 147타(71 76)로 3위를, 이어 박규환 박진환씨가 4오버파 148타로 공동 4위에 랭크 됐지만, 백카운드에 의거 박규환씨(75 73)가 4위, 박진환씨(73 75)가 5위에 각각 마크됐다.

이날, 구력 25년의 장진규씨가 9번홀(파3)에서 5번아이언으로 티샷한 브리지스톤볼이 상쾌한 예감을 던지며 홀인되어, 생애 6번째 홀인원 기록과 함께 행운의 특별상이 수여됐다.

이상전 챔피언은 지난해 한국미드아마연맹에 입회하여 그린투어 1차 우승으로 시드 확보하고 올해 신설 첫 대회에 혜성같이 나타나 데일리베스트상과 우승을 휩쓸며 떠오른 샛별로 귀추가 주목됐다.

지난해 미드아마 그린투어 1차전 우승을 비롯해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골프 토너먼트 우승. 엔픽플 왕중왕전...등 여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실력파 미남 골퍼인 이상전씨는 드라이버샷 280m를 날리는 장타수로 평균타수는 3언더파 69타. 베스트스코아 8언더파 64타를 보유하고 있다.

우승소감에서 "올해 들어 첫 신설대회에 우승을 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훌륭하신 동반자들 덕분에 편안하게 경기를 치룰 수 있어 감사함을 전했다.

평상시 약점이 드라이버인데 이번에 바꾼 오토플렉스 샤프트와 TSR3드라이버 때문에 비거리와 방향성이 증가하여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며, 첫날 버디 3개를 기록하고, 최종일 전반전 보기없이 6.7.13.15번홀에서 버디4개를 잡아 정확한 드라이버샷과 롱 퍼팅의 호조가 우승요인이 됐다"고 피력했다.

글/사진 한수경 영남지사 지사장

'2030 Busan Expo' 유치기원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구력10년의 이상전씨가 데일리베스트상 을 차지하며 미드아마 챔피언컵을 거머쥤다.